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7·8·9월호 소개 -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0	예배 이렇게 드려요	2	09
가정0	예배 이렇게 드려요	2 (1-13주 실제)	
1주	07.03 ~ 07.09	예수님의 성장	12
2주	07.10 ~ 07.16	발을 씻기는 겸손	14
3주	07.17 ~ 07.23	위로부터 난 지혜	16
4주	07.24 ~ 07.30	함께할 때 강하다	18
5주	07.31 ~ 08.06	예수님의 섬김	20
6주	08.07 ~ 08.13	성경의 위로	26
7주	08.14 ~ 08.20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28
8주	08.21 ~ 08.27	회복된 영혼의 자유	30
9주	08.28 ~ 09.03	길과 생명	32
10주	09.04 ~ 09.10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8
11주	09.11 ~ 09.17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40
12주	09.18 ~ 09.24	경건이란	42
13주	09.25 ~ 10.01	이와 같이 하라	44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 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 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 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 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7-9월호를 시작하며...

#1

강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흔들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둔 밤 폭풍우에 온 마음이 빼앗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엄마가 따뜻이 속삭여 줍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일의 아침을 만들고 계시단다'

#2

성경의 첫 이야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문구가 6번 나타납니다. 매일 매일 '아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많은 날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아침이면 여전히 성실함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폭풍과 무거운 짐들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 68:19)

예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읍고' (눅 11:3)

폭풍우 치는 밤 너머로 또 다른 아침을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매일 아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알려주는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먹이셨던 광야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 찬양하는 다윗처럼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는' 은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날마다 새 날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면 날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

7월~9월 가정예배책자는 오이코스 주간 주제와 연동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매 주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 "성장", "겸손", "지혜", "관계", "리더십", 8월 - "위로", "승리", "자유", "믿음의 경주", 9월 - "환경", "일터", "경건", "이웃 사랑"

한 주에 한 번, 매 주일은 가정이 함께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주일 한 번의 가정예배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여름 우리 가정. 가족이 서로 약속하여 날마다 오이코스 묵상에 꼭 참여해 봅시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 16:4 절 중)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당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일-sun	월_mon	화_tue	수-wed	목_thu	금_fri	E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누가복음 2:52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가면〉

11_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52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생각하기

Q1.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어린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Q2.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 말씀듣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보통의 아이들과 같 이 키가 자라고, 지혜와 지식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 님께 사랑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자란 부 분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키와 지혜 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시며 마음과 영적으 로 자라시는 모습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 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셨기에 어 느 누구도 스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성장의 기쁨과 기대가 사라 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 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런히 배우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으셨던 것 처럼 우리 가정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크고 좋은 은혜 안에서 매 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 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발을 씻기는 겸손 요한복음 13:14-15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11P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14-15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생각하기

- Q1.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겸손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 Q2.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됨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 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요 13:1).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은 가장 고귀한 겸손 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 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앉으셨습니다. 예 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명씩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 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가 하 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은 이처럼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 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고귀한 사랑과 겸손 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본 받아야 합니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겸손의 종이신 예수님 을 따라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가 하늘 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저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종 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높아 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귀히 여김 받고 함 께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17-18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11_P



말씀읽기 - 야고보서 3:17-18

-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생각하기

01. 하늘의 속한 지혜로 살기위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02. 우리 가정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말씀듣기

여러분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주로 지혜를 추상적이고, 중립적으로 생각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혜를 세상(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로 구별합니다. 그렇 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이기적인 욕망 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혼란과 악한 상황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위로부 터 오는 지혜로써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보다 선하다고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 에 속한 지혜로 살지 않고 땅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지혜로 살면 자신에게 이익 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면 손해를 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땅 의 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어리석은 것입니 다.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이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로 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세상에는 시 기와 다툼으로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통해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 고 서로를 용서해주며 서로를 세워간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 기하여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없애자 정말로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뿌더러 서로가 계속해서 힘겨 루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처럼 사셨지만 위로부터 난 지 혜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 들은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결국에 선 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 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할 때 강하다

전도서 4:11-12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11_P



말씀읽기 - 전도서 4:11-12

-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생각하기

Q1.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Q2. 누군가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과 마음은 어땠는 지 나누어 보세요.



💎 말씀듣기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사 막과 같은 지역을 혼자 여행할 때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곳곳에 여행자를 노리는 맹 수와 강도들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힘들게 합니다. 이처 럼 혼자 여행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 께 있을 때,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 면 이겨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홀로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 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내가 겪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 하고 있나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와 협 력하여 하나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 을 살아간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 라, 서로 합력하여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 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 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 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 만 이제는 제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하 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 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섬김 마가복음 10:43-45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11P



말씀읽기 - 마가복음 10:43-45

-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각하기

- Q1. 마가복음 10장 4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남을 섬겼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 Q2.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까요?



ᄬ 말씀듣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과 차고 넘치는 열정에 예수님은 두 형제를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두 형제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더 나아가 목숨을 내주 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 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의 목숨 까지도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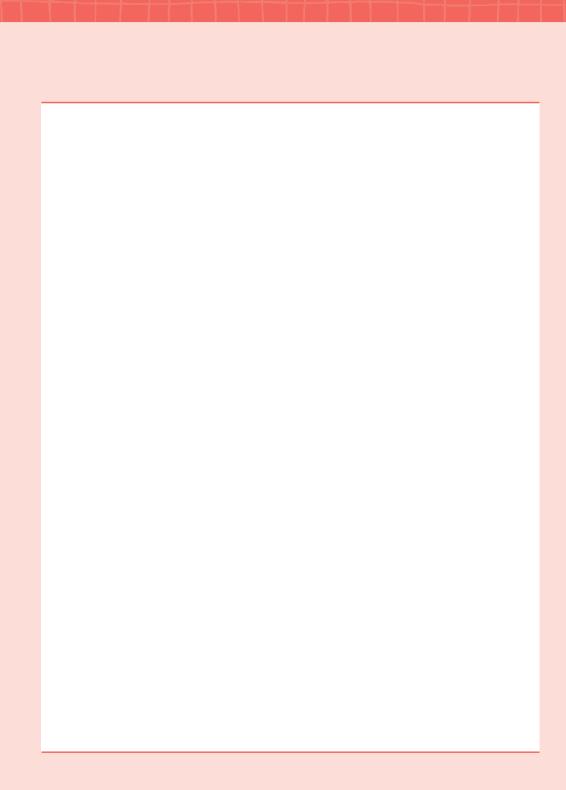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메모 MEMO





AUGUST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fri	E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5p



말씀읽기 - 로마서 15:4

0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생각하기

Q1.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위로 받고 싶나요?

Q2. 최근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위로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누어보세요.



💎 말씀듣기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 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글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SNS나 유튜브, 또는 TV프로 그램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고 위로해줄 그 누군 가, 그 무엇인가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슷 한 상황에 처하면 또 다시 힘들어지고, 또 다시 위로자를 찾는 일이 반복 됩니다. 그리 고 그것이 계속 반복 되다보면, 위로가 더 이상 위로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 도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 해 임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말씀 안에는 수많은 위 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눈 물 흘리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 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 게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힘들 고 외로움 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 시길 바랍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아프거나 외로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 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 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57-58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5p



말씀읽기 - 고린도전서 15:57-58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생각하기

Q1.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승리를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내가 경험한 승리는 어떤 승리였는지,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눠보세요.

Q2.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번 주 나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 말씀듣기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명을 가지게 된 것일까 요?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 이 들어오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 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워하시기 위해 예수님 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 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며, 우리들에 게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 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신 예 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 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드리운 곳에 나아가, 예수님의 빛 을 비추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 생명 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 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 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 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게 해주세요.





회복된 영혼의 자유 시편 6:9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5_P



말씀읽기 - 시편 6:9

0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생각하기

Q1.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02. 주님이 선물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ᄬ 말씀듣기

'자유'란 얽매임 가운데서 해방되어.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자유로워 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 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의 영혼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용서해주셨습니 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느끼자 이렇게 고 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 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영혼의 자유를 얻은 다윗은 고통 가운데 벗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의 억눌렸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다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만 같이 자 유를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무언가에 얽매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과 고통 속에 얽매여 헤매는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집중하시며 구원하시고자 손을 뻗 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워하시고자 움직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 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 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고 믿 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진정 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길과 성명 사도행전 20:23-24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5p



말씀읽기 - 창세기 21:22-34

-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각하기

Q1.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이 아픔과 고난이 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나요?

Q2.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나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 말씀듣기

우리는 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 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바른 길을 알 수 있을 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를 가야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지 등 궁금해 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할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 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 이 아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 난이 기다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 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각, 지식, 지혜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길을 바르게 아 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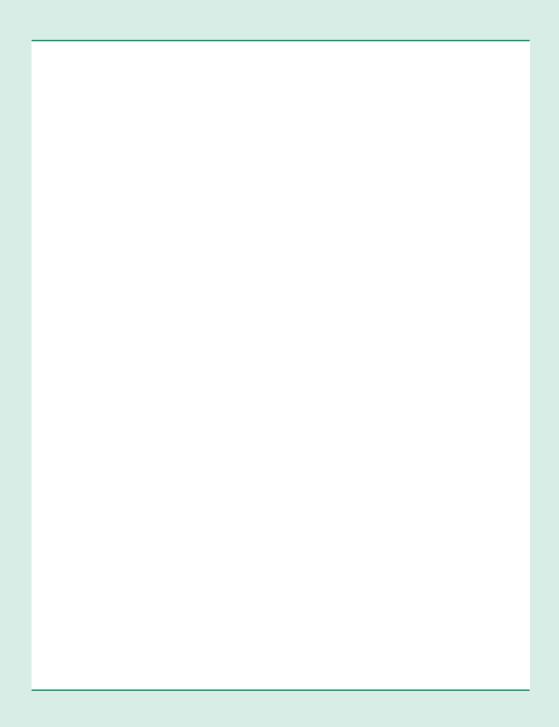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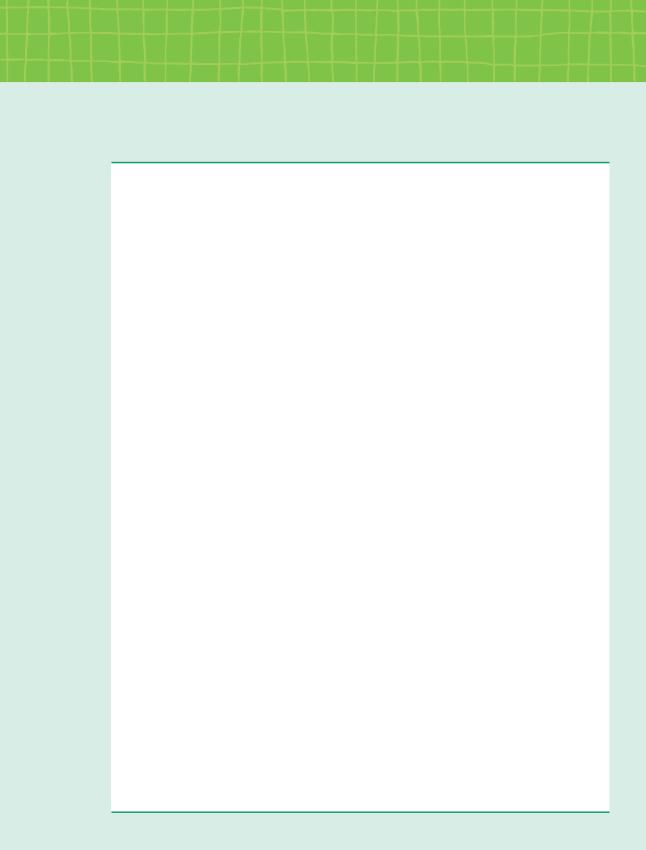
기도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따 르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SEPT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fri	E −sat
				1	2	3
4	5	6	7	8	9 ~~~~추스	
	12 덕연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마

날

다

날

마

다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

리 걸

어

가

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31



이달의 찬양 〈주와 같이 길가는 것〉 37p



말씀읽기 - 창세기 1:31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생각하기

Q1.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께서 그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Q2.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 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무엇이 세상의 모습을 이토록 달라지게 했을까요?



붉게 물든 새벽노을, 밤하늘을 수놓는 별, 푸르른 바다, 예쁜 꽃들... 자연의 아름다 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 다. 성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것 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시고 설계하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도 좋고 아름다 워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 어버린 세상,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자연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 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이 세상을 작품처럼 공들여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 나 안타까워 보이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세상의 모습이 회복되는 꿈을 꾸어 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죄로 인해 망 가진 세상을 고쳐 나가는 작은 실천들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 아 세상이 본래 아름다움을 되찾는 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과 정성을 담아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 던 그 세상의 모습을 꿈꾸며, 죄에 빠진 세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작은 실 천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골로새서 3:22-24



이달의 찬양 〈주와 같이 길가는 것〉 37_P



말씀읽기 - 골로새서 3:22-24

-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생각하기

01. 주중에 일상적인 삶의 자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은 무엇이 있나요?

Q2.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현재 내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 게 변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종종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며, 이 둘이 서로 연결되거나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연결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인들의 눈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인들은 마치 짐승 다루듯이 종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복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 자신이 맡은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고 겸손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께 하듯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

왕이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달의 찬양 〈주와 같이 길가는 것〉 37p



말씀읽기 - 야고보서 1:26-27

-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생각하기

Q1. 내 모습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족들 과 나눠보세요.

Q2. 내가 좀 더 '하나님적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 세요.



율법을 꼬박 꼬박 잘 지키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 가운데 서서 손을 높이 들 고 선 채로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율법을 잘 지켰어 요!' 성전 뒤쪽에는 세리와 병자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 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이들을 보 던 바리새인이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인인 세리 같지 않아 서 감사하고, 저 병자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율법을 지켰어도 자기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의 기 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세리와 병자들 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경건(godliness)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 님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여 쉬이 자기 자랑하 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종종 다른 사 람을 무시하며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로 상처 주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 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꼭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경건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더러운 죄에 쉬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 적인 삶'을 살고 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혀가 하나님을 닮아 나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이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서로 어려울 때 더 돕고 위해주는 마음 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든, 하나님 닮 은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36-37



이달의 찬양 〈주와 같이 길가는 것〉 37_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0:36-37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Q1.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02.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자를 발견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 십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하 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 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제사 장과 레위인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으 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무시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만난 자를 도와준 것 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어려운 제사 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반 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라 미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 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향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 기를 통해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 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가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모 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게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죄인 된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 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주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33호

발 행 일 | 2022년 7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양동욱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